

## 한국대댐회 창립 40주년 그리고 「한국대댐회 4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72년, 댐 및 관련시설의 설계·시공·운영관리 기술을 높이고 국제협력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대댐회는 우리나라 댐 건설과 그 역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기술로 초대형 소양강댐을 시공하면서부터 댐 건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댐은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도시건설, 국민보건 향상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안정적인 물 확보, 태풍과 집중 호우에 따른 자연재해 방지 등 이·치수에 기여한

공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큼니다. 특히, 소양강 댐과 안동·대청·충주 등 다목적댐의 역할이 컸습니다.

댐 운영 기술의 발전도 눈부십니다. 4대강 유역의 실시간 댐 연계운영을 통한 홍수 조절능력 등은 세계가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약적 발전은 지난 40년 동안 쌓아온 다양한 댐 설계·시공·운영 경험과 과감한 선진기술의 도입에 따른 것으로 이 모든 발전 과정에 우리의 한국대댐회가 늘 함께 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여러 자연재해가 생겨나 인류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기후변화로, 그 중심에는 물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는 2.7배, 가뭄발생도 3.4배 늘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일본, 미국 등에서 매년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가운데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극심한 가뭄이 자주 발생하는 중남미와 아프리카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등의 결과로 물 스트레스(water stress)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세계기상기구(WMO)의 경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취수율 34%로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비해 물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댐을 만드는 것은 가능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많은 양의 물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댐이 가지고 있는 수자원 확보, 홍수 및 가뭄 방지 등의 순기능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시대의 변화들은 새로운 댐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니즈(Needs)들이 좋은 예입니다. 댐의 역할을 슬기롭게 바꾸어 나가야만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치수를 넘어 댐-보 연계운영과 기존 댐의 다기능·다목적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유역의 생태·환경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첨단 수질관리시스템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댐 주변의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댐을 넘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댐을 이용한 레크리에이션 기능이나 주변 숲과 연계한 힐링(Healing) 기능 등 새로운 가치를 국민에게 제공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댐 정책과 기술발전을 위한 정부 및 산학연의 관심과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한국대댐회(KNCOLD)의 중추적인 역할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국가 댐 정책을 지원하고 기술발전을 이끄는 데 앞장서 온 것처럼, 미래 수자원관리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수행을 기대합니다.

새로 선보이는 「한국대댐회 40년사」가 물의 중요성을 새롭게 일깨우면서 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바라며, 한국대댐회 창립 40주년 그리고 「한국대댐회 40년사」 발간을 거듭 축하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